Weekly Keyword

"야스카와 3Q23 실적"

타사 대비 실적 발표가 빨라 자동화 부문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일본의 야스카와 실적이 발표됨. 로봇 부문 실적과 수주는 여전히 부진하나, 고객사 재고 조정 지속되며 바닥 구간 통과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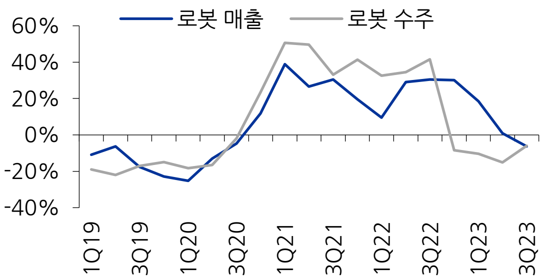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5)

[로봇과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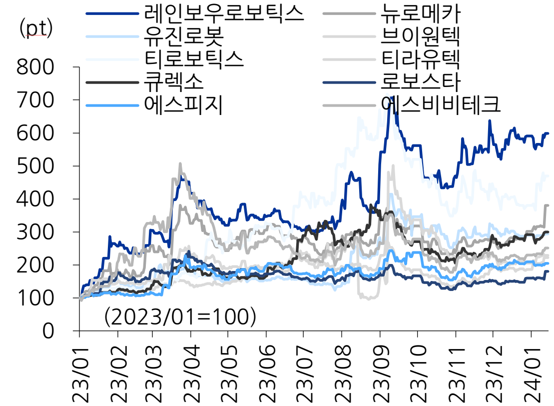
- 자동화 부문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일본 야스카와의 3분기 실적(23년 9~11월)이 발표.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354억엔(-6%yoy), 영업이익 135억엔(-20%yoy)을 기록. 로봇 부문 실적은 매출액 546억엔, 영업이익 56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 18% 감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자동화 수요가 견조하지만, 중국 내 수요 부진이 발목. 특히, 중국에서는 그동안 높은 EV 관련 수요가 있었으나, 최근 투자 흐름이 둔화 중. 수주의 경우 1,283억엔을 기록하며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18%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3% 반등. 로봇 수주는 631억엔(-6%yoy, +19%qoq)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 특히 두림 야스카와(한국)의 자동차 산업 향 대규모 수주가 견조한 흐름에 기여. 4분기 로봇 수주는 아직까지 대규모 수주 예정이 없어 3분기 대비 감소 가능성 존재. 아직 전체적인 업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고객사 측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며 바닥 구간 통과 중인으로 판단

Key Chart: Yaskawa 로봇 부문 실적 및 수주 yoy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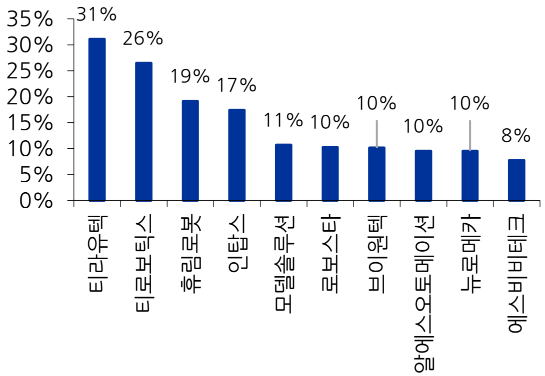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주요 종목 시총 추이 차트



국내 주요 로봇 종목 YTD 수익률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1/15~01/21)

[산업용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자동화 구현 신사옥 내년 완공
- 해군 2함대 수리창에 용접용 협동로봇 도입

[서비스 로봇]

- 삼성웰스토리, 조리로봇 등 첨단자동화장비 도입 방침
- 삼육대, 삼성 EX1 활용 고령자 운동 능력 평가 실시
- 한국생기연, 무인 자동화 스마트팜 로봇을 공개

[기타(정책/부품/SW)]

- 산업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
- 기계연, LLM 적용 제조 공정 로봇 작업 AI 개발
- 한국로봇산업협회, 독일 하노버메세에서 한국관 운영
- 미래에셋벤처투자, 미국 의료로봇 기업 네오시스 투자
- 로봇분야 한국 수출 M/S 18년 10%에서 6%로 감소

[Global]

- 구글과 UC버클리, 범용 로봇 AI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미국 Locus Rootics 성장 둔화 대응하여 인력 감축
- 중국, 실버경제 위한 지능형 간호 로봇 보급 촉진
- 중국 베이징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위한 펀드 출범
-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로보에라, 183억 투자 유치
- 중국 물류 로봇 기업, 일본 내 사업 확대 가속화
- 일본 야마하, AGV 바이패스 적용 조립라인으로 전환
- 일본 사가와, 로봇 도입해 트럭 상하차 자동화 추진
- 독일 BMW, 미국 피규어의 휴머노이드 도입 추진
- EU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최종 승인 여부 불투명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